



김실비
Sylbee Kim

존재론적 알레고리-김실비의 <비스듬한 원뿔 행동>

상호 간의 작용-반작용을 지닌 우리의 세계는 위대한 척도 안에서 내린 확고한 선택의 미덕과 더불어 우리의 행위 능력에 의해 결정되는 세계이다.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간 속에 존재하는 또 다른 선택, 그리고 그에 부합하는 전혀 다른 세계가 공존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¹

김실비의 작업은 상당히 구축적이기 때문에, 작품을 이루는 요소의 관계를 파악하며 접근할 필요가 있다. 흡사 도상 해석에 가까운 각각의 알레고리는 작품을 구성하는 형식의 축을 중심으로 의미를 확장시킨다. 그의 두 번째 개인전 <비스듬한 원뿔 행동(Slanted Conical Behavior)>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금지곡들: 여자란 다 그래>와 <원뿔 행동>이 그것이다. 전자는 모차르트의 오페라 부파 <코지 판 투테(Cosi fan tutte)>를, 후자는 베르그송의 "물질과 기억"에 등장하는 원뿔 도식을 차용하고, 그 맥락을 우려 내거나 비틀어 동시대를 바라보는 작가의 시각을 재현하고 제언한다.

먼저 <금지곡들: 여자란 다 그래>(이하 '금지곡들') 연작을 구성하는 것은 크게 오페라 <코지 판 투테>와 자막, 영상 속의 극(劇), 그리고 무음(無音)이다. 작가는 오페라의 주요 인물 여섯 명을 전혀 다른 상황과 배경 속에 등장시키고, 각각의 서사를 갖도록 한다. 여기서 원작 오페라의 내용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모사꾼에 가까운 돈 알폰소와 데스피나는 선의와 사랑의 관계를 교란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며 통념을 증명하는 냉소적 인물이다. 반면 약혼한 사이인 굴리엘모와 피오르딜리지, 그리고 페란도와 도라벨라는 속고 속이며 상대를 바꾸어 사랑하게 되는 한바탕 소동의 중심 인물들이다. 이 호사스러운 희극 오페라는 비상식적 구조를 통해 18세기의 세속적 사랑 놀이와 가치관을 대변하고 있으며, 김실비가 차용하는 지점 역시 여기서 출발한다. 그러나 <금지곡들>의 등장 인물들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역설로 변이한다. 또 이 과정에서 로코코 시대의 우아한 축제는 파기되고, 오늘의 사회 문제에 대한 은유로 가득한 랩과 비트에 따라 변화하는 뮤직 비디오로 재현된다. <난 저 밤색 머리 남자가 좋아>는 두 자매의 숨겨진 욕망이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후 도래할 미래로, <남자를, 군인을>에서는 데스피나의 수브레트(Soubrette)가 정보 기술 발달의 문제와 그 이면의 지배 논리로 변화되고, <무정한 사람이야 왜 도망치나요?>의 상대가 뒤바뀐 감정의 갈등은 어느 정치 활동가 커플의 모습으로 진화한다.

더욱이 이것은 금지곡이다. 우리의 현대사는 금지곡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금지곡들은 은폐된 것에 대한 저항과 권력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언어를 가지고 있다. 김실비는 오늘의 삶에 만연된 기술과 개발의 위험성, 거기에 잠재된 미래의 일상과 투쟁을 가사를 통해 전달한다. 그리고 이것을 스스로 '금지곡'이라 명명함으로써, 권력 논리가 작용하는 금기의 역설을 드러낸다. 예

An Ontological Allegory: Sylbee Kim's *SLANTED CONICAL BEHAVIOR*

It would be the same for all things and all events: the world in which we live, with the actions and reactions of its parts upon each other, is what it is by virtue of a certain choice in the scale of greatness, a choice which is itself determined by our power of acting.¹

Sylbee Kim is quite a structuralist; a comprehensive approach is required to deciph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lements that construct her works. Each allegory — which could be placed almost in a realm of iconology — expands its meaning, evolving around the axis of formalistic motives of the work. Kim's second solo exhibition, *SLANTED CONICAL BEHAVIOR* consists of two major works: *Banned Songs: Cosi Fan Tutte* and *Conical Behavior*. The former adopted Mozart's opera buffa *Cosi Fan Tutte*, whereas the latter introduces Henri Bergson's diagram of inverted cone from his book *Matter and Memory*; both works represent and state the artist's perspective based on which she observes our contemporary world, freely collaging or twisting the original contexts. What constructs *Banned Songs: Cosi Fan Tutte* (hereinafter referred to as '*Banned Songs*') foremost are the opera piece *Cosi Fan Tutte*, the subtitles, the performance in the video and the silence. Kim places the six major figures of the opera in a completely different setup and environment, animating them through individual narrative for each. At this point we could remind ourselves about the original plot of the opera: Don Alfonso and Despina represent the pragmatic commoner and take on the role of unsettler of a romantic relationship, of the good will and love; while Guglielmo and Fiordiligi, Ferrando and Dorabella are the two couples who end up swapping the fiances after a chain of fussy complots of deceit and flirt. This extravagant comic opera shows a secular play of love and the values of the 18th century through the banality of its dramaturgy, which became a focal point of interest for Kim's project. The figures in *Banned Songs* transcend to a paradox to our idea of the present and the future. For doing so, the elegant rococo feast is turned over into music videos where rap lyric and beat-suggesting edits are fed with metaphors on today's social issues. In *I like that chestnut-haired*, two sisters' hidden desires are

¹ Henri Bergson, *The Creative Mind - An Introduction to Metaphysics*, Dover Publication, pp.96-97.

컨대 데스피나의 아리아 <남자를! 군인을!>에서는 경찰이 통제하는 베를린의 한 시위 현장을 무대로, “내 꿈은 너에게 인식 불가 / Invisible my dreams to your control, 감시하려는 네 수가 다 보여 / Surveilling, you wanna see through me”와 같은 가사를 통해 정보 사회 속 개인의 일상이 노출되고 감찰되는 현실을 환기한다. 또한 <무정한 사람이 왜 도망치나오?>는 “내 안을 통치하는 거인의 조각들 / Shattered giants in me that govern my world, 그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아 / Whose shadows wouldn't scatter”에서 볼 수 있듯, 군사적 이해 관계로 인해 파괴되는 제주 강정 일대의 정치 활동가 연인의 의지와 불안이 담긴다.

그러나 이들의 노래는 들리지 않는다. 오로지 화면 속 자막을 통해 그 노래를 읽게 하고 있을 뿐이다. 또 노래방이나 유튜브 영상에서 본 듯한 영문과 국문의 자막은 동시에 부를 수도 없다. 하지만 그의 전작 <에밀리 D.: 미분화 상태의 협업>(2012)에서 오지 않을 가수의 무대를 관객에 의해 채우게 되었듯이, 이 ‘소리 없음’과 ‘가사’는 관객을 작품 속의 인물로 유인한다. 즉 침묵 속에서 부를 그 각자의 노래가 영상 속 인물의 목소리가 되는 것이다. 또한 이 노래의 배경이 되는 영상들은 흔히 노래방에서 보았던 모호한 연출로, 무음-가사-영상 간의 미세한 거리를 유지한다. 그것은 각각 조금씩 어긋난 방향을 바라 보면서, 이전 시대의 유희, 현실의 우리, 그리고 미래의 예감 사이의 개입과 혼란의 관계를 제시한다. 과거에서 변이한 지금의 문제가 <금지곡들>이 되어 침묵 속에 불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단절이자 접촉이며, 이러한 이중적 상태가 김실비의 작업이 시간과 공간과 관계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시간과 공간, 그리고 현실 사이의 순환 고리는 그의 <원뿔 행동>로 연결된다. 베르그송의 “물질과 기억”에 등장하는 원뿔 도식은, 현재란 과거와 공존하면서 우리 내부의 잠재적 기억이 외부의 지각과 혼합되어 만들어 내는 상태임을 보여 준다. 김실비의 작업은 이 모형을 ‘하나의 이미지’로 상정한다. 베르그송에 의하면, 이미지는 하나의 물질이며, 이것이 지각에 호소하고 기억 속에 재현된다. <원뿔 행동>은 이러한 메커니즘을 다시 영상에 투사함으로써 기억과 지각, 그리고 의식이 혼합된 삶이라는 총체가 세계를 인식하는 작은 틀로 안내한다. 원뿔은 인식의 모델이자, 그 자체가 ‘행동’을 통해 움직이는 물질(혹은 이미지)인 것이다. 원뿔은 또 다른 원뿔에서 나오는 빛과 그림자에 의해 왜곡되고 가려지며, 거기에 하나의 원뿔은 다른 그것의 꼭지점과 관계하며 그림자를 만든다. 원뿔 사이의 이 복잡한 간섭은 순수한 잠재성이 현재와 마주하며 변환되는 각기 다른 현실 인식을 증명한다. 다시 말 해, 고정된 ‘물질’이란 없으며, 이것은 비스듬히 개개의 기억과 결합하여 완전히 다른 의미의 다양성으로 끊임없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물질과 기억”의 한 문단이 프랑스어-한국어-영어로 교차되어 들리는 소리는 원저인 프랑스어가 다른 언어로 번역되면서 조금씩 상실되는 차이와 혼돈에 주목하게 되는 장치이다. 마치 물질과의 대면에서 우리의 지각이 선택을 거치고, 기억과 결합해 재현되는 것처럼, 언어 역시 단어를 속에 내포된 의미의 근본적인 관계가 번역되고 변화되는 텍스트의 특성과 마주칠 때, 연속적인 인식

projected onto a post-Fukushima future; while in *In men, in soldiers*, Despina's Soubrette is challenging the problematic of information technology development and the ideology behind it; in *Unkind one! Why do you run away?*, the uneasiness toward a swapped partner evolves to the description of the psychology of a political activist couple.

Furthermore, here it is about banned songs. Our modern history is a history of banned songs, that linguistically resist against and disempower a corrupted structure. In her lyrics, Kim embeds messages about the threat of the diffuse pursue of technology and a future everyday of struggle that lurks around in the current growth-oriented development. By naming it 'banned songs', the paradox in the idea of taboo gets revealed, behind which ideologies operate. For example Kim's Despina, in her aria *In Men, in Soldiers*, shot on location at a demonstration in Berlin accompanied by police control, sings "Invisible my dreams to your control / Surveilling, you wanna see through me", suggesting our inspected reality in the information society where private sphere is exposed and surveilled. In *Unkind one! Why do you run away?* the anxiety and will of a political activist pair is contained in lines such as "Shattered giants in me that govern my world / Whose shadows wouldn't scatter", situated in Gangjeong area on Jeju Island destroyed for constructing a US military base. However, these songs are not audible but only readable, subtitled on the screen. Reminding karaoke or YouTube subtitles, the simultaneously running Korean and English captions are impossible to be sung, as a matter of fact. In her previous work, *Emily D.: The Latent Collaboration* (2012), Kim led the audience to fill a stage that will be never occupied by a singer; similarly, here, the 'missing sound' of the 'lyric' introduces the viewer to the figures in the work. That is, each song that will be sung inside by the silent viewer will become a substituting voice for the protagonists in the video. At the same time, the images, appearing as ambiguous as typical karaoke backgrounds, become the surrounding of the song, maintaining the subtle tension between the silence-the lyric-the image. Each of them indicate discrepant directions, suggesting the uncertain and interfering connections between the playful games of past era, our present reality and the premonition of future. Thus the mutated past illustrates present questions rendered into 'banned songs', waiting to be sung in silence. This simultaneously constructs a discontinuation and a contact and its double-ness corresponds to how Kim's works relate to time and space.

The reciprocal junction of time and space, and of different realities, continues in *Conical Behavior* as well. The inverted cone, which appears in Bergson's *Matter and Memory*, illustrates how the present is



<난 저 밤색머리 남자가 좋아> I will take the chestnut-haired, 2013, 가변 크기 dimensions variable, single channel HD, color, mute, 3'16" (video still)



<남자를, 군인을> In men, in soldiers, 2013, 가변 크기 dimensions variable, single channel HD, color, mute, 3'20" (video still)

constructed coexisting with the past, a state based on the subconscious memory fused to our perception of the world. Kim handles the model as an 'image'. According to Bergson, an image is a matter which appeals to the perception and gets represented within the memory. Conical Behavior projects this idea onto the physicality of a projection, to provide a frame to our perception of the world, as a microscopic whole consisting of memory, perception, and consciousness. The cone is a cognitive model as well as a matter(or an image) that moves through a 'behavior'. At the same time it gets distorted and hidden by the light and shadow cast from another cone; a cone affected by the summit of another starts to cast its own shadows. Such complex interferences between cones in the video prove the multiplicity of the reality, it being in transition as like the intact subconscious emerging to the present. In other words, there is no such thing as an immutable 'matter', and it continues, *slanted*, combining different memories then to endlessly expand itself to a variety of a completely different kind.

In particular, the voiceover quoting a paragraph from *Matter and Memory* switching between French-Korean-English becomes an apparatus which leads us to focus on the loss of original French in translation and 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translated languages. This process is analogue to the experience of facing the matter, noticing how our selective perception merges with the memory then to become an image; when the language equally confronts the nature of a text where fundamental association of meanings embedded between the words gets translated and altered, the continuous perceptive field continues oscillating between fusion and intersection. On the other side, a pseudo-slide-projector shows a still cut from the juxtaposed video projection, through the former the light passes and casts the blurred image onto the wall: it shows how a solid image differentiates and scatters between specific selections and accumulated memories. Pure perception can happen only within oneself. The reason why humans are imperfect seeing same object as all different varieties, is due to our purely subconscious memories, through which we face the world. In Kim's work the present indicates a partial, latent state whose sections bear infinite variety of possibilities, crossing between the past and the future. To Kim, foremost, the medium video represents an apparatus that visualizes this state. Video is virtual on the plane of time, and it is a section of a duration. Thus her video is a possibility to deal with unpredictable ontological questions, which are destined to mutate through numerous interactions within time and space. As Bergson states, since "my

의 장은 혼합과 교차를 반복하는 것이다. 또한 원뿔 영상과 병치된 프로젝터 설치는 스틸컷 슬라이드 필름을 통과한 빛이 벽 위로 흐릿하게 영사되어 고정된 이미지가 특정한 선택과 누적된 기억 사이에서 분화되고 흩어지는 상태를 드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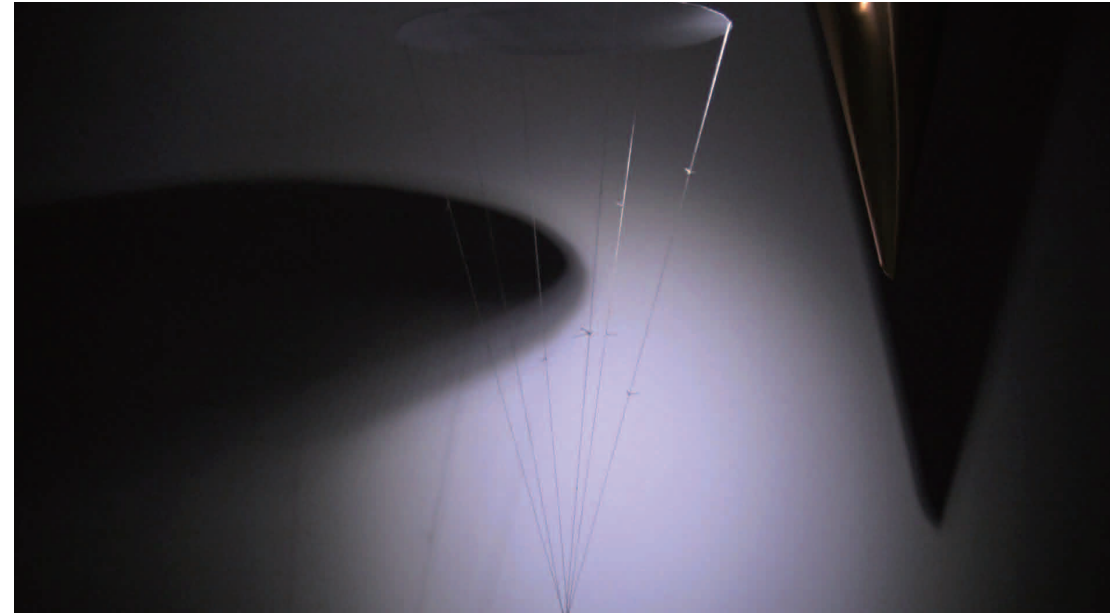
순수한 지각은 오직 자기 안에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같은 것을 얼마든지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는 불완전한 인간인 이유는 각자의 잠재된 순수한 기억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세계와 마주하기 때문이다. 김실비의 작업에서 현재는 부분적이고 잠정적인 상태이고, 이러한 현재의 단면은 과거와 미래를 가로지르며 무한한 가변적 상태에 놓인다. 무엇보다 그에게 영상 언어는 이것을 구현하는 장치이다. 영상은 시간을 지닌 평면 위의 가상이며 지속 안의 단편이다. 따라서 그의 영상은 시공 속에서 무수한 상호 작용을 통해 변화되는 예측 불가능한 존재론적 의문을 다루는 가능성의 하나이다. “나의 현재는 현재는 과거에 담긴 한 발과 미래에 담고 있는 한 발을 가지고 있다”는 베르그송의 말처럼, 《비스듬한 원뿔 행동》은 이 순간의 역사와 창조인 것이다.

글. 구나연(미술평론가)

present has one foot in my past and another in my future”², *SLANTED CONICAL BEHAVIOR* corresponds to the history as well as to the creation of this very current moment.

Gu Na-Yeon (Art Critic)

² Bergson, *Matter and Memory*, ed. Nancy Margaret Paul and W. Scott Palmer in http://www.brocku.ca/MeadProject/Bergson/Bergson_191b/Bergson_1911_03.html



<원뿔 행동>(세부) *Conical Behavior (detail)*, 2013, 가변크기 dimensions variable, video and slide installation, color, sound, mixed media, loop (video still)



<무정한 사람이! 왜 도망치나요?> *Unkind one, why do you run away?*, 2013, 가변 크기 dimensions variable, single channel HD, color, mute, 3'33" (video still)